



화순전남대병원, ‘감염예방의 날’ 행사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최근 본관 1층 로비에서 ‘2024년 감염 예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감염예방, 모두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감염관리실과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입원 환자와 보호자, 직원, 내원객을 대상으로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 안전 문화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민정준 병원장과 성명석 사무국장, 이애경 간호부장, 김어진 감염관리실장, 박원주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을 비롯해 화순군 보건소에서 박미라 소장 등 직원들이 함께했다.

민 병원장 등은 병원 곳곳을 돌며 손 위생과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또 로비에 마련된 홍보부스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등 내원객이 직접 참여하는 손 위생 6단계, N 95 fit test 체험 활동도 펼쳐졌다.

노병하 기자



적십자 광주전남,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재홍)는 지난 21일 집중 호우에 대피한 지역 주민에게 긴급구호 세트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도 15개 시군에서 523세대가 대피했다.

이에 광주전남지사는 해남군을 비롯한 총 4개 면에서 긴급구호물자 지원요청을 받아 적십자 직원과 봉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긴급구호 물품 121개를 전달했다.

박재홍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집중호우로 전남 지역 곳곳에 주택 침수, 도로 침수, 정전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할 상황이 발생했다”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지사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행정기관 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해 지역 피해 최소화와 구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광주소방, 봄철 화재예방 안전대책 ‘최우수’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의 ‘2024년 봄철 화재예방 안전대책’ 평가에서 시 단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

봄철 화재예방 안전대책 평가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봄철 화재예방을 위해 추진한 각종 성과를 평가한다.

광주소방은 봄철 화재 피해 특성을 반영해 대형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2대 전략, 7개 추진과제를 설정해 안전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건설현장 화재안전 강화 △화재취약시설 안전확보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활동 등 각종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또 건설현장에 대해 현장 행정지도, 관계기관 합동조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시원·주거용 빌라하우스·물류창고 등 화재안전조사로 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형 판매시설 지하주차장 옥

내소화전 위치 표지판(LED 패널) 설치로 현장 소방대원과 관계인의 활용을 높이고 소방시설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펼쳤다.

이와 함께 민·관 협업을 통한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요양원에 화재대피함 세트와 휴대용 산소마스크 보급으로 피난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우는 등 일상 속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

이 같은 노력으로 광주지역 봄철(3~5월)에 발생한 화재는 지난해 199건이었으나 올해는 21.11% 감소한 157건으로 집계됐고, 재산피해는 전년도 19억3600만원에서 13억8100만원으로 28.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용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으로 전 직원이 노력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촘촘한 안전대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고위공무원 폭력예방 교육

광주시는 23일 시청 무등홀에서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폭력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진행되는 맞춤형 의무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젠더폭력 예방 등 조직관리자로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인지 감수성 업(UP), 젠더 폭력 제로(Zero)’라는 주제로 진행된 교육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고광완 행정부시장,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실국장 등 3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순향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PKO)센터 교수는 최근 젠더폭력의 양상과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젠더폭력 발생 구조와 예방 대책, 폭력 발생 시 관리자로서 대응 역할 등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영상물의 폐해에 대한 사례와 예방 대응 정책을 공유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아동의회, ‘시의원 합동 간담회’ 개최

제4대 광주시아동의회(광주YMCA)는 지난 21일 광주시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 5일 정책선언식에서 발의 준비 중인 정책에 대한 질적인 논의 및 입법화 사례 공유 등을 위해 개최됐다.

앞서 광주시아동의회와 광주시의회는 지난 2017년부터 ‘멘토-멘티 협약’을 맺고 주기적으로 간담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논의 내용은 △최지현 의원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가게 운영 지원에 관한 안’ △명진 의원 ‘광주시 찾아가는 어린이클럽 지원에 관한 안’ △이명노 의원 ‘광주시 초등학교생 MAST(알레르기)검사 지원에 관한 안’ 등이다.

아동의회 측은 “시의회 선배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정활동 방법 등 정책 실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성현 기자



전남인평원, 광주·전북·제주 ‘고향사랑기부’

전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범희승)은 호남·제주 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지역 상생발전 일환으로 최근 광주·전북·제주 평생교육진흥원과 상호 고향사랑 기부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고향사랑기부는 광주·전북·전남·제주 평생교육진흥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뤄졌으며, 기부를 통해 받은 답례품은 목포 공생원에 기증했다.

공생원 관계자는 “기증받은 답례품은 추석을 맞은 생활 아동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됐다”고 말했다.

범희승 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가 호남·제주지역 상생발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나주소방서, 완강기 안전체험 교실 운영

나주소방서는 지난 20일 나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인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완강기 안전체험 교실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이번 안전체험은 나주소방서 훈련장에서 △완강기 이론 △완강기 장비 착용·사용법등을 익혀 직접 하강하는 안전체험 형식으로 진행됐다.

나주소방서는 지난달 22일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를 계기로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이번 완강기 체험교실을 기획했다. 이와 함께 나주시민을 대상으로 완강기 체험장도 연중 운영에 나선다.

박연호 나주소방서장은 “완강기를 적절 체험해봄으로써 완강기 사용법을 정확히 익히고 심리적 두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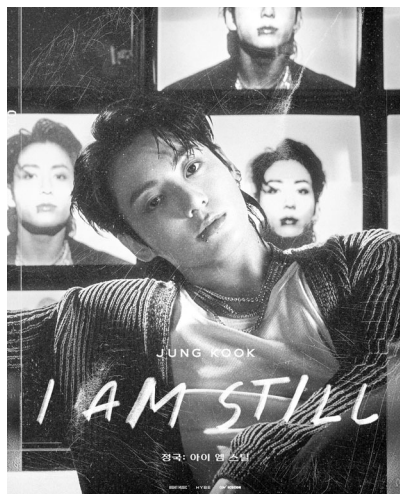
나주=김용의 기자

CGV, ‘정국: 아이 엠 스틸’ 2주차 특전 이벤트 진행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첫 단독 다큐멘터리 영화 ‘정국: 아이 엠 스틸(사진)’이 개봉 2주차 특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23일 CGV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10월1일까지 영화 관람 시 정국의 셀카 이미지가 담긴 포토카드 2종 중 1종을 랜덤 증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간 내 특전이 소진될 경우 이벤트는 자동 종료된다.

‘정국: 아이 엠 스틸’은 정국이 ‘글로벌 팝스타’에 등극하기까지 지나온 약 8개월의 여정과 아미(ARMY·팬덤명)를 향한 마음을 담아낸 영화다. 첫 솔로 앨범인 ‘골든(GOLDEN)’의 제작 과정과 뉴욕 타임스퀘어 TSX 엔터테인먼트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무대, 미공개 인터뷰와 비하인드 등이 담



겨 호평을 받고 있다.

영화는 한국 CGV를 비롯한 전 세계 120여개 국가와 지역 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일본에서는 내달 4일 개봉한다.

곽지혜 기자

배우 수현, 차민근 위위크 전 대표와 결혼 5년 만 이혼

배우 수현(39·김수현)이 결혼 5년 만에 이혼했다.

23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근 수현은 위위크코리아 전 대표 차민근(42·매튜 삼파인)과 파경을 맞았다.

소속사는 “수현씨는 신중한 논의 끝에 그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마쳤으며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됐지만, 서로 응원하고 있다. 오랜 고민과 충분한 대화 끝에 결정한 사항인 만큼 악의적인 댓글과 추측



수현



차민근

성 보도는 자체해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수현과 차민근은 지난 2019년 12월 결혼했으며 이듬해 9월 딸을 낳았다.

곽지혜 기자